



What's up, OITA!

《VOL.55》

2020년

12월 발행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께,
오이타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오이타 우리 사진 고향

유후시



쇼나이 카구라

신화를 주제로 북과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추는 웅장하고 유머러스한 전통춤



쇼나이 배

쇼나이에서는 가을이 되면 국도변에 있는 농원 직판장에서 신선한 배를 살 수 있다

구니사키시



야요이 마을

안코쿠지 취락 유적 공원 야요이 시대의 생활을 하면서 체험



타코메시

생문어와 함께 지은 밥에는 문어의 감칠맛이 제대로 나와있다

유학생 스터디 투어

유학생 스터디 투어는 현내의 유학생이 오이타현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장래에는 모국과 오이타현의 가교가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국제 정책과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21(토) 다케타시 · 고코노에 정

11월 21일 (토) 오전에는 고코노에 정에 있는 타데와라 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다케타시에 9월에 문을 연 야외 공연장 「TAO의 언덕」에서 일본의 전통 악기인 와다이코를 사용한 퍼포먼스를 감상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주로 야외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날씨가 나빠질까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화창한 날씨 속

에서 각 지역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타데와라 습원의 자연에 둘러싸여서

야소의 웅대한 대자연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TAO의 연주도 놀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와다이코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벵푸 대학 4학년)

11/28(토) 히타시 양조장 투어

또한 11월 28일 (토)에는 오이타현 주조 조합과 연계하여 양조장 투어로 히타시를 방문했습니다. 오전에는 (주)산와 주류의 이이치코 히타 증류소를 견학하여 오이타 현산 보리소주 제조 공정 및 홍보 전략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주)군초 주조의 양조장을 견학하며 일본주 제조 과정 및 역사 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시음도 마련해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처음

맛보는 소주 · 일본주의 맛을 즐겼습니다.



(주)군초 주조 양조장 견학 모습

두 양조장의 술 모두 제 입에 잘 맞았고, 규슈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딱인 술이었습니다. 긴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PU 2학년)

「오이타의 맛!」을 전달하는 농림 수산물 PR 영상 제작



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오이타현의 농림 수산물을 PR 하는 영상을 새로 제작했습니다.

영상 제작 경위

올해는 농림 수산물 수출면에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섭, 현지 전시회 출품 등에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 상담회 등의 기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외를 대상으로 오이타현의 농림 수산물을 효과적으로 PR 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간쑤(고구마)

건표고버섯

양식 참다랑어

배

쇠고기

양식 방어



생산자 · 전통 문화와의 조화

영상은 해외 바이어 대상과 현지 소비자 대상 2 종류로 제작하여 바이어 대상에는 산지의 모습 및 생산자의 생각을 담았으며, 소비자 대상에는 일본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서예의 움직임과 샤미센 소리와 같은 일본 문화를 섞는 등 궁리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간소

또한, 다양한 나라의 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번체자, 간체자) 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랑어 회

앞으로 온라인 상담 및 현지 대량 판매에서의 판매 촉진 활동 기회 등에 활용함과 동시에 널리 국내외 여러분들도 감상하실 수 있도록 현청 홈페이지에서도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타현 농림 수산물물은 아시아를 비롯한 북미, 유럽 등에도 수출되어 현지 양 판점과 음식점에서도 취급되고 있습니다.

길에서 발견하
면
꼭 드셔보세요!



건표고버섯

https://theoita.com/eng_product/ (영문)



※화면 상부에서 중국어(번체자, 간체자)로 변경 가능





요우라 반도의 가와즈 벚꽃 쓰쿠미시 소식



쓰쿠미시에 있는 요우라 지구에서는 2월이 되면 빨리도 벚꽃 소식이 들립니다.

요우라 지구에는 현재 가와즈 벚꽃이 5000그루 이상으로 오이타현 안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명소입니다.

예년이면 2월 상순에 개화 소식이 들리고 중순 경에는 제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2월 중에는 가와즈 벚꽃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우라 지구가 가와즈 벚꽃의 명소가 된 계기는 2004년 8월에 태풍 16호로 큰 피해를 입었던 일 때문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를 어필하며 지역 활성화로 연결 짓기 위하여 2005년에 요우라 지구의 주민들이 중심축이 되어 지역 내 거리 등에 이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가와즈 벚꽃 식수를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심은 초반에는 사슴이 잎이나 가지를 갉아 먹는 등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활동과 선의로 보내주신 묘목 등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식수와 관리를 이어온 결과 매년 그 수가 늘어나게 되어 현재는 약 5000그루 이상이 만개하는 오이타현은 물론 서일본 유수의 가와즈 벚꽃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서 2013년부터 「분고 수도(水道) 가와즈 벚꽃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에는 분고 수도의 파란 바다에 길가에 핀 가와즈 벚꽃의 분홍색이 돋보이며 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요우라에서 한 발 빠른 봄소식을 느껴 보시지 않겠습니까?